

[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]

[주]성도이엔지 영종도 물류센터 현장 단부 추락 件

안전기획팀
'23.02.17. 10:00

□ 시공사 : [주]성도이엔지 (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9위)

□ 현장개요

- 현 장 명 : 스페이스스원 영종도 복합물류 신축공사
- 공사기간 : 2022.02. ~ 2023.03
- 공사기간 : 250억
- 공사규모 : 지상1층~지상7층, 연면적 27,386.14㎡

□ 재해내용

'23.02.14(화) 13시 50분경 2층 단부(높이 10M)에서 잭 써포트 자재정리 작업중 1층 바닥으로 추락
[잭 써포트 자재정리를 위해 재해자가 철근을 잭써포트 플레이트 홀에 끼워 작업 중 철근이 빠져 그 반동으로 단부쪽으로 추락

□ 재해사진



□ 피해상황

- ▷ 인적피해 : 1명 사망
- ▷ 물적피해 :

□ 사고원인 추정

- ▷ 단부 작업시 추락 예방조치 미실시 및 중량물 취급을 불안정한 도구로 1인 작업 시행
- ▷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

□ 당사 현장 조치사항

- ▷ 재해사례 전파
- ▷ 추락 위험 단부는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추락 예방 조치 선행 후 작업 시행
- ▷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 수립 및 적절한 취급 도구 사용
- ▷ 상기 사고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대책 수립 후 작업 실시

■ 언론 보도자료(KBS 외)

인천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...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



인천의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

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"오늘(14일) 오후 1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복합물류센터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숨졌다"고 밝혔습니다.

하청 노동자인 A 씨는 사고 당시 7층짜리 건물 2층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,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안전모는 쓰고 있었지만, 사고 현장에는 추락 등을 막기 위한 안전망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,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